

특별취재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9일부터 25일까지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의 발아율 및 DNA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은 우수브랜드 쌀 재배농가의 우량종자 확보와 정부보급 종자의 부족에 따라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고자 운영중 사업으로 이번 검사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와 기술보급과의 협조하에 종자관리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지난 9월 포장검사를 통과한 7개 채종포 단지의 발아율, DNA 검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은 지난 3월 7개 단지 49.4ha를 선정하여 1억원을 투자에 순도 높은 신통종자 우량종자 270톤을 채종하고 있으며 올해 생산될 우량종자는 앞으로 종자관리사를 통한 종자검사 결과를 토대로 신뢰성과 우수성을 확보하여 12월에 종자신청을 받아 내년 2~3월경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설립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설치 운영

군산시 설립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독서보조기기를 설치하고 지난 7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독서보조기기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880만 원을 지원받아 구입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탁상용 독서확대기와 점자 디스플레이 및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김홍식 군산시립도서관장은 "독서보조기기의 활용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립도서관(454-57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임피면, 난방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홍보

군산시 임피면이 동절기 저소득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홍보와 함께 에너지 빈곤가정 찾기에 나섰다.

임피면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빈곤을 해소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이장들을 에너지 복지 도우미로 지정했으며, 이들은 에너지 빈곤 가정 찾기와 에너지 바우처 홍보를 통해 신분노출을 꺼려하는 주민들을 독려해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2017년 1월말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17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살뜰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등유, 연탄) 판매소에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가산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정보화사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17년 지방세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지방세정보화 운영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는 행정자치부(지방세입정보과) 및 전국 시도와 시군구별 지방세 실무담당자, 지역정보개발원, 운영지원단 등 약 1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세정보화사업 관련 4개 실무분과를 각 분임조로 편성,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임토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로 2017년 지방세정보화 주요 추진과제 23건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 및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군산=문정곤기자

내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한국컨벤션학회 학술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등 300여명 참석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컨벤션센터와 지역 MICE 산업'이란 주제로 '한국컨벤션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내일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군산시 관계자 및 MICE 관련 학자와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마이스(MICE)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즉 회의나 포상관광, 국제회의, 각종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지역 MICE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김대중컨벤션센터 신환섭 사장의 '컨벤션센터와 지역 MICE 활성화 방안' 강연이 펼쳐진다.

이어 학술논문 발표에서는 지속 가능한 MICE에 대한 인식이 전시회 참가자의 참여 가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등 MICE와 관련한 20여 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한국전주시주최협회에서 '국제 전시회기화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스코(GSCO)에서도 '지역컨벤션센터

로서의 역할과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컨벤션학회 학술대회를 통하여 지스코(GSCO)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어 향후 센터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벤션학회는 지역 MICE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MICE 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상품개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논문투고 공모전 및 학회참가 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스코(063-468-472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주거복지 향상·지역경제 활성화·지역발전

익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 체결

9일 익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서기식)와 익산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세계 식품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공급시설 등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으며, 상호협력하여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상호 모색하기로 했다.

LH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인화동에 건설 중인 행복주택을 적기 공급하는 등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무

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다가구주택 매입, 취약계층 전세임대 운영 등 수요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밖에 양 기관은 동반상생을 위해 상호 지속적이고 협력하고, 지역현안사업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지역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LH와의

협약 체결로 익산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소외 없는 복지도시이자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적기 준공 및 활성화로 식품산업의 중심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LH 박상우 사장은 "익산시와 LH 양기관이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익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바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 방문

농가들 위로·대책 마련

정현을 익산시장은 9일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함평읍 다송창고와 용안면 교통창고의 공공비축미곡 매입현장에 방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농가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수매량을 늘려 농가들의 쌀값하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

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897톤이 늘어난 14,885톤(시장격리곡 포함)이며, 매입가격은 40kg기준으로 특등 4만 6480원, 1등 4만 5,000원, 2등 4만 3,000원, 3등 3만 8270원이며, 매입 시 이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중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공공비축미곡 추진을

위하여 쌀 소득 등 직접 지불자금 면적 및 전년도 매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매입량을 읍면동에 배정하고 12월 초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주요업무 결산 보고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훈)가 2016년도 제98회 임시회 개최중 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고 연초 보고한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용균)의 업무보고 요약은 다음과 같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재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통행이 늘 것을 대비해 '익산관광 마스

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익산역 광장에 상설공연장 마련, 팽투어 활성화, 익산역 관광안내소 설치, 전라북도 운영 시티투어 버스연계 등 다양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이다 보니 동일한 참석자가 반복적으로 참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운영시제, 장소 등의 변화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제시했으며, 어떠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행정적인 평가에서 그치지 말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생산물 구매에 있어서 우리지역 생산품 사회적기업 등 우리시가 구매노력하고 있으나 부서가 다를 경우 소용이 잘 안되고 있음을 지적했고 구매 계약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육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시기적절하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때에 집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중앙여고 철새보호 연합 동아리 '새들처럼' 환경부장관상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서도 전북도 교육감상 수상

군산중앙여고(교장 고현덕) 원더버즈와 스콜퍼머의 철새보호 연합 동아리인 '새들처럼'이 전국 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해 화제다.

'새들처럼'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사)에코맘코리아가 주관하는 제11회 생물다양성 청소년 리더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가 후원하고 공익재단법인 체험학습 연구개발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창의적 체험활동 경진대회에서도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제11회 생물다양성 청소년 리더 공모전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기여한 동아리를 시상하는 11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규모 대회로 본선에 진출한 17개교 중, 고등학교 동아리 49개팀 중에서 11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167명이 경합을 벌였다.

공모전에 참가한 '새들처럼'은 지난 5개월간 겨울철새의 먹이인 새싹매자기 보호를 위해 각종 외래종을 퇴치하고, 새싹매자기 재배 실험을 통해 소논문 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환경부장관상이라는 결실을 거뒀다.

군산시 금강철새조망대와 함께 금강의 철새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새들처럼'은 2012년부터 군산중앙여고에서 활동해 온 철새보호 동아리 '원더버즈'와 식물재배를 통한 인성 함양을 목표로 올해 처음 결성한 '스콜퍼머'가 연합한 동아리로 남다른 철새 사랑으로 다양한 철새보호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철새보호 기금 마련을 위해 협찬 받은 빵을 판매하고, 이너버드 나눔장터인 '새들의 날'을 4회 가장 개최했으며, 그 수익금의 18%를 본선에 진출한 17개교 중, 고등학교 동아리 49개팀 중에서 11개교의 고등학교 학생 167명이 경합을 벌였다.

공모전에 참가한 '새들처럼'은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구암동, 지역 통장들 통장신부증 발급

군산시 구암동이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역 통장들에게 '통장 신분증'을 제작 교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및 이웃과의 단절로 통장의 가정방문이 힘들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사실조사,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도 신분증의 중요성을 열어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암동은 통장의 업무 효율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관내 통장 16명에게 통장증을 교부했다. 통장증은 주민과 만날 때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민이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발급기관과 사진을 전면에 넣고, 뒷면에는 임기·관할구역 등 상세한 내용을 기록했다.

김영남 구암동 통장협의회장은 "가정 방문시 통장이라고 해도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통장증을 제작해준니 통장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기간 구암동장은 "통장증 제작으로 주민 신뢰감을 형성해 원활한 업무추진에 큰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대민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나운2동 주민센터 명칭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군산시 나운2동은 9일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일반민원과 안전 등의 기능을 포괄한 의미로, 각 지자체를 통한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명칭이다.

이번 주민센터 명칭 변경은 찾아가

는 복지상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읍면동 복지하브화 사업추진의 일환이다.

최나삼 나운2동장은 "행정복지센터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